2026년 8월 09일 주일 2부 예배 [허남길 목사]

요한일서 5 : 16 ~ 21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함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함 받는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구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데, 그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고 없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히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른 죄도 지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나는 약해서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표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는 사망의 죄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사망의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 받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4~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교회 다니고 때로는 말씀도 듣고 교회 안 다녀도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춰서 ‘아~ 교회 다니는 게 좋구나, 찬송이 좋구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좋구나 은혜스럽구나.’ 하고 빛을 받는 거예요. 또 은사를 맛보고. 밥 먹는데 맛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참여한 바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나도 은혜 받은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한 번 빛을 받았어요. 진짜는 생명이 없어요. 참 억울하죠.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온누리 교회 다니다가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심판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온누리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함 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죄에서도 용서받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예수 믿고 살인죄 백 번, 천 번 하면, 용서 못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사람도 없겠죠.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을 만한 죄도 없어요. 예수 믿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류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5대양 6대주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자꾸 예수 믿도록 감화 감동하는데 그거 거부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말은 그거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16장 7절~13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죄가 살인, 간음, 도둑, 구타, 사기 이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가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본질적인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 그랬어요. 그게 단수입니다. 본질적인 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믿음이 더 클수록 나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바울은 나는 죄인 중의 괴수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자꾸 알기를 원한대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보고 일부러 안 믿습니다. 일부러. 이게 용서 못 받지 못한 죄입니다. 사함 받지 못한 죄. 일부러 안 믿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 다녔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 팔아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으면 내가 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다시는 죄 안 짓도록 힘을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는 불신앙하고 우상에게 귀신에게 돌아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를 지키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불순종하고 먹으면 약속이 파괴돼 버린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이 체결된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이 파괴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75세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들 주겠다.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요. 아들 주겠다니까 엘리에셀이 나 후사가 되게.. 잘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 와서 아들 주겠다니까 이스마엘이나 후사... 잘 안 믿는 겁니다. 99세 때 믿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언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데 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안 믿으니까. 안 지키니까. 안 믿는다는 증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안 믿을 때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환경이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차츰차츰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현실이나 환경 이런 걸 보고 진짜인 줄 알면 안 돼요.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는 겁니다. 안 떠나시고 같이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사탄에게서 끝나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로마서 8장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가 깨달음을 주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영생인 것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런 놀랍고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예수님보다 돈, 명예, 권력, 지식, 쾌락을 더 사랑하지 말고... 그거 다 우상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같이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